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리상^{1*}, 조홍중²

¹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조교수, ²전남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A Study on Enculturation Type and Life's Satisfaction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Lee-sang Chon^{1*}, Hong-joong Cho²

¹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Chodang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문화적응 유형을 파악하고, 이 유형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적응유형을 동화 요인, 변화 요인, 주변화 요인, 분리 요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적응유형들 중 통합 요인, 동화 요인 등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분리 요인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장치 개발, 또한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 확대, 한국 사람들의 친근한 처우와 교류 촉진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에서의 거시적 정부정책도 동화주의 정책 보다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표본의 지역적 한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변수의 한계, 횡단적 연구로의 한계 등으로 앞으로는 더 폭넓고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유형, 분류, 삶의 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is positive research to figure out enculturation types and to analysis influence of enculturation types on life's satisfaction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By precedent study, enculturation types was classified by integration factor, separation factor, assimilation factor and marginalization factor. To achieve objectives of study, we carried out sampling,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According to result of study, integration factor and assimilation factor were appeared positive influence and separation factor was appeared negative influence statistically on quality of life of them. Therefore for quality of life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it need to develop interact system with native persons, support opportunity to associate with koreans, and promote fair treatment and interaction of koreans for them. And government have to execute multiculturalism policy more than assimilation policy. this study have that was samples's regional limitation, few variables limitation, and cross-sectional research's limitation. Therefor it needs more wide and depth research than this for future.

Key Words :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enculturation type, classify, life's satisfaction

1. 서 론

오늘날 국제관계의 다양성과 국내의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의 증가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다[1]. 이 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목적으로 한 이주인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였다[2]. 이러

*Corresponding Author : Lee-sang Chon(chohj@jnu.ac.kr)

Received December 18, 2018

Accepted February 20, 2019

Revised January 17,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한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국내로 이주해 들어와 많은 다문화가족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국제결혼 대부분은 만남과 교제의 기간이 짧아 배우자와 그 나라의 관습과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3]. 따라서 많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문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4]. 결혼 이주여성은 현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족 내 다양한 역할에 놓은 삶의 주체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나, 국제결혼의 특성상 모국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로 이주하는 변화는 단순한 지역적 그리고 지리적 이동을 넘어 전혀 다른 새로운 사고와 가치관 및 행동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이주여성 개인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5].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문화와 관습의 차이, 타향살이로 인한 외로움,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 사회적 편견과 여러 제도적인 상이함, 사회적인 안전망 미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순조롭고 신속한 한국사회의 정착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적응방법과 정책들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분류하고 이들 유형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우리 사회에 대한 조속한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서비스의 모색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선행연구

일반적으로 적응(adjustment)이란 한 유기체가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여 살아남기 위한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 특히 특정한 문화나 환경에서 다른 문화와 환경으로의 이동과 같은 변화 속에서는 적절한 적응이 요구된다[6]. 특히 문화적응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의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와 사회환경에서 장기간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양쪽 또는 한쪽 집단의 모든 변화과정이다. 이것은 집단적 수준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

기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7]. 또한 개인의 적응양상은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발달적 상태와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8]. 또한 이규은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문화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과는 역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9].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Berry(1997)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4가지 문화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주민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함에 있어서는 원문화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문화적 유지(cultural maintenance)'와 둘째, 이주민들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고 교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접촉과 참여(contact and participation)'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10].

첫째, 통합(integration)은 자신의 모국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 경우로, 양쪽 문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통합한 경우로, 유능한 이중문화적 태도(bicultural)를 가진다. 둘째, 동화(assimilation)는 자신의 모국문화는 버리고 새로운 사회의 문화만을 수용하는 경우로, 새로운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버리고 주류사회 집단에 흡수된다. 셋째, 분리(separation)는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문화를 거부하는 경우로, 원래 자신이 속했던 문화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넷째, 주변화(marginalization)는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사회의 문화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주류문화의 주변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들은 주로 사회의 하층으로 전락하여 기존 질서와 문화에 반항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가질 수 있다.

성현란(2011)은 대구·경북지역의 다문화가정의 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아내의 문화적응과 결혼 및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11]. 그 결과, 부적응적 지표인 주변화는 아내의 결혼 및 삶의 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적응적 지표인 통합은 삶의 만족에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화는 결혼 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분리는 결혼 만족 및 삶의 만족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주변화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및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통합의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았으나 삶의 만족과는 관련이 없었고, 분리는 결혼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없었다.

박주희와 정진경(2007)은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의 타당화 연구를 위해 대학생과 일반성인 그리고 타문화 관련업무 종사자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은 통합과 동화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12]. 이는 모국문화의 좋은 점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통합의 유형이 나타나고, 통합과 동화가 적절히 혼합된 경우에는 한국문화 적응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반면에 가족과 주위 이웃의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동화를 보이는 때는 불행감이 매우 높은 삶을 산다고 언급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양옥경 외, 2009)에서 서울시 24개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197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화적응유형이 분리, 동화, 통합, 주변화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13]. 특히 주변화 영역에의 경우는 한국사회의 주류문화와 모국문화 모두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인데 다른 문화적응유형에서 보다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경향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조진숙 외, 2017)에서도 주변화, 동화, 분리, 동화 등의 문화적응유형 중 주변화 경향만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로 한정하였다.

이들에 대해 연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자기기입식으로 하는 설문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8년 8월에 1개월간 실시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센터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도구로는 통계프로

그램 SPSSWIN 21.0을 활용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으로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기술적 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2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인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서 문화적응 유형 요인을 선정하였다. 문화적응유형 요인은 Berry(2001)의 EAAM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 및 수정한 노하나(2007)의 척도[1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총 29문항의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하나(2007)가 제시한 수정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한 신뢰도와 요인분석을 통하여 13개 문항으로 축소하여 분석하였다. 총 13문항 중 주변화 요인 5개 문항, 동화 요인과 분리 요인 각 3개 문항씩, 그리고 통합 요인 2개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통합 요인, 동화 요인, 분리 요인, 주변화 요인들의 각 변수들 관해 측정하였는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척도는 주관적인 척도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민성길(2000)의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를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척도로 사용하였다[16]. 민성길(2000)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는 0.9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구성은 한국 생활과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정도를 변수로 선정하여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들에 관한 각 변수들의 분포 및 적합성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타인들이 나를 싫어함’, ‘사교의 어려움’, ‘타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나라 사람끼리의 연애를 추천’,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주지함’ 등 5개 변수들은 주변화 요인에 관한 변수들로 선정되었다.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울림’, ‘한국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더 잘 표현’, ‘한국 사람과 더 편안한 느낌’ 등 3개 변수는 동화 요인에 관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한국어 쓰기를 잘함’, ‘가장 친한 친구들은 모국사람’, ‘한국어로 시를 쓰는 것이 편함’ 등 3개의 변수들은 분리 요인의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양국의 친구들이 모두 있음’, ‘양국의 친구들과 친함’ 등 2개 변수는 통합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해 본 결과는 <table 2>과

같다. 먼저 문화적응유형의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603.240이고, 자유도 값은 78이었으며, 이의 유의수준이 0.05 이하이므로 영가설이 기각된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2256.585이었으며, 자유도 값은 210이었고, 이의 유의수준이 .05 이하이므로 여기에서의 영가설도 기각된다. 따라서 두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rotational factor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

variable	marginalization	assimilation	separation	integration
the others don't like me	.616			
difficulty of social intercourse	.703			
difficulty of others's acceptance about me	.735			
recommend romantic relationship with same country	.537			
difficult to trust others	.718			
assimilation with korean		.728		
more expose feeling to korean better than homeland's people		.714		
more comfortable feeling with korean		.779		
well doing to write korean language			.675	
sociability with homeland's people			.647	
comfortable to write poet by korean language			.686	
have all friends of two country				.837
comfortable with two country's friends				.747

Table 2. KMO and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on enculturation type and quality of life

factors	enculturation types	quality of life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769	.91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603.240
	df	78
	Sig.	.000

주요 변수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검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주변화 요인에 관한 항목수는 5개였고, Cronbach's Alpha(α) 계수는 0.725였다. 동화 요인에 관한 항목수는 3개이고, Cronbach's Alpha(α) 계수는 .712로 나타났다. 또한 분리 요인에 대한 항목수는 3개이고 Cronbach's Alpha(α) 계수는 .619로 나타났다. 통합 요인에 관한 항목수는 2이고 Cronbach's Alpha(α) 계수는 .696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인 삶의 질 요인에 관한 항목수는 25개였으며, Cronbach's Alpha(α) 계수는 .916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

factors	items	Cronbach's Alpha
marginalization	5	.725
assimilation	3	.712
separation	3	.619
integration	2	.696
quality of life	25	.916

여기서 설정한 변수들에 대한 Cronbach's Alpha(α)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측정을 위해 구성된 항목들의 산술평균치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4. 자료분석

4.1 인구사회학적 통계와 기술적 통계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알기 위해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42.8%), 20대 이하(39.5%), 40대(15.8%), 50대 이상(1.9%)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출신국 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31.5%), 필리핀(13.4%), 캄보디아(7.4%), 일본(3.2%), 우즈베키스탄(2.3%), 몽골과 기타(각 0.9%), 태국(0.5%) 등의 순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 그리고 캄보디아 등 국가에서 많이 이주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종교적 분포를 보면, 종교를 갖지 않

은 경우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교(28.4%), 기독교(15.6%), 카톨릭(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슬람교가 0.5%, 통일교가 3.8%, 기타가 6.0%를 차지하였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item	n(%)
age	~29	85(39.5)
	30~39	92(42.8)
	40~49	34(15.8)
	50~	4(1.9)
native country	china	68(31.5)
	vietnam	86(39.8)
	philippines	29(13.4)
	thailand	1(0.5)
	cambodia	16(7.4)
	uzbekistan	5(2.3)
	japan	7(3.2)
	mongolia	2(0.9)
	the others	2(0.9)
religion	Christentum	33(15.6)
	Catholic Church	17(8.1)
	Buddhism	60(28.4)
	Unification Church	8(3.8)
	Islam	1(0.5)
	none	79(37.4)
communication language with husband	the other	13(6.0)
	Korean language	164(77.7)
	native language	12(5.7)
	Korean and native language	33(15.6)
	English	1(0.5)
the married duration	the other	1(0.5)
	~5 years	102(47.9)
	6~10 years	81(38.0)
	11~15 years	18(8.3)
	16~20 years	5(2.3)
education	21 years ~	7(3.2)
	none	1(0.5)
	elementary school	4(1.9)
	middle school	54(25.0)
	high school	81(37.5)
	collage	29(13.4)
	university	44(20.4)
graduate school	3(1.4)	
job	existent	62(29.4)
	none	149(70.6)

남편과의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는 한국어가 77.7%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와 본국어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15.6%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5.7%였으며,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0.5%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여 살아 온 기간은 5년 이하가 47.9%로 가장 많았으며, 6~10년 정도가 38%, 11~15년 정도가 8.3%, 16년 이상이 5.5%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37.5%), 중학교(25.0%), 대학(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본의 결혼이주여성 학력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이상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직업을 가진 경우가 29.4%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70.6%로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에 대한 기술적 통계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statistical analysis

variable		m	S.D.	Sk.
marginalization	the others don't like me	3.77	1.109	-.956
	difficulty of social intercourse	3.54	1.020	-.513
	difficulty of others's acceptance about me	3.78	.957	-.581
	recommend romantic relationship with same country	3.63	1.145	-.690
	difficult to trust others	3.44	.928	-.351
	assimilation	assimilation with korean	2.91	1.035
more expose feeling to korean better than homeland's people		2.88	1.018	.538
more comfortable feeling with korean		2.69	.916	.392
separation	well doing to write korean language	2.61	1.028	.371
	sociability with homeland's people	2.13	1.142	.859
	comfortable to write poet by korean language	2.60	1.087	.395
integration	have all friends of two country	3.52	1.165	-.475
	comfortable with two country's friends	3.60	1.070	-.175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주변화 요인에서 살펴보면, '타인들이 나를 싫어함'에 있어서 평균값은 3.77(S.D.=1.109),

‘사교의 어려움’은 평균값이 3.54(S.D.=1.020), ‘타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음’의 평균값은 3.78(S.D.=.957), ‘같은 나라 사람끼리의 연애를 추천’의 평균값은 3.63(S.D.=1.145),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주저함’의 평균값은 3.44(S.D.=.928)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왼쪽으로 긴 꼬리가 늘어진 부(-)의 값을 나타냈다. 또한 주변화 요인의 평균값은 3.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화 요인에 관해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울림’은 평균값이 2.91(S.D.=1.035), ‘한국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더 잘 표현’은 평균값이 2.88(S.D.=1.018), ‘한국 사람과 더 편안한 느낌’의 평균값은 2.69(.916)으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모두 오른쪽으로 꼬리가 늘어진 분포를 나타내는 정(+)의 값을 나타냈다. 또한 동화 요인의 평균값은 3.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분리 요인에 관해 살펴보면, ‘한국어 쓰기를 잘함’의 평균값은 2.61(S.D.=1.028), ‘가장 친한 친구들은 모국사람’의 평균값은 2.13(S.D.=1.142), ‘한국어로 시를 쓰는 것이 편함’의 평균값은 2.60(S.D.=1.087)로 나타났으며, 왜도는 정(+)의 값을 나타냈다. 분리 요인의 평균값은 2.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통합 요인에 관해 살펴보면, ‘양국의 친구들이 모두 있음’의 평균값은 3.52(S.D.=1.165), ‘양국의 친구들과 친함’의 평균값은 3.60(S.D.=1.070)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왜도는 모두 부(-)의 값을 보였다. 통합 요인의 평균값은 3.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4.2 상관관계 분석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주변화 요인은 동화 요인과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그리고 분리 요인과는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합 요인과는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삶의 만족 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동화 요인은 분리 요인, 삶의 만족 요인과는 유의수준 .001에서, 그리고 통합과는 유의수준 .05에서 정(+)적인 방향에서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통합 요인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001에서 정(+)적인 방향으로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분리 요인은 통합 요인과 삶의 만족 요인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Table 6. relation between marginalization, assimilation, separation, integration and life's satisfaction

factor	marginalization	assimilation	separation	integration	life's satisfaction
marginalization	1.000				
assimilation	-.315**	1.000			
separation	-.171*	.385**	1.000		
integration	.146*	.161*	.104	1.000	
life's satisfaction	-.020	.209**	-.011	.477**	1.000

** : p < 0.01, * : p < 0.05

4.4 회귀분석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각 요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설명정도를 나타내주는 R²=.263이고 통계량 F 값이 18.801로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통합요인 요인의 B값은 .473, 동화 요인의 B값은 .166, 분리 요인의 B값은 -.134.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서 통합 요인과 동화 요인은 정(+)적인 측면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리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부(-)적인 측면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화 요인은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회귀분석 결과

factor	R ²	F	sig.	β	t	p
constant					8.233	.000**
marginalization	.263	18.801	.000**	-.060	-.933	.352
assimilation				.166	2.442	.015*
separation				-.134	-2.086	.038*
integration				.473	7.708	.000**

** : p < 0.01, * : p < 0.05

이러한 결과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문화에 통합이나 동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분리의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결과, 문화적응유형들 중 통합 요인, 동화 요인 등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분리 요인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 못지 않게 본국의 가족, 친구 등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 사람들의 친근한 처우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결혼이주여성 과 다문화가족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한국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회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거시적 정부정책도 미국식의 동화주의 정책 보다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김혜영 외, 2015)[17]를 지향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만 제한한 것으로서의 한계, 문화적응 유형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만 분석으로의 한계, 횡단적 연구에 한정했으므로 한계 등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보편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지리적 확대, 종단적 연구, 문화적응 유형 외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한 연구 등이 요구된다.

REFERENCES

[1] J. R. Lim, Y. K. Han, & H. H. Kim. (2017). The Relationship of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and Oral Management Ability of Vietnam Marriage 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6. pp.109-111.

[2] E. S. Lee. & H. Moon. (2018). Comparison of Obstetric Outcomes between Married Immigrant and Korean Pregnant Women in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3. pp.279-287.

[3] J. S. Cho. & J. W. Hwang. (2017). The Effect of Marriage Immigrant Women's Acculturation Tendency on Marit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Acculturation Str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8. No.2. pp.931-954.

[4] E. S. Lee. & H. Moon. (2018). Comparison of Obstetric Outcomes between Married Immigrant and Korean Pregnant Women in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3. pp.279-287.

[5] J. R. Lim, Y. K. Han, & H. H. Kim. (2017). The Relationship of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and Oral Management Ability of Vietnam Marriage 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6. pp.109-111.

[6] I. S. Kim. & K. M. Cho. (2017). A Fusion Program of Tea Ceremony and Applications to Reduce the Cultural Adaption Stress of Chinese Students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12. pp.445-450.

[7] J. W. Berry.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ta, & G. Marin.(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8] J. W. Berry., U. Kim, & D. Mok.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pp491-511.

[9] K. E. Lee., Y. H. Yom. & H. K. Chang. (2011). Influence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J Korea Acad Soc Nurs Edu*, Vol 17. No.3. pp.514-523.

[10] J. W. Berry., & D. Sam, (1997). Acculturation and adaptio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 pp.291-326.

[11] H. R. Sung. (2011). Influence of husbands' sex role stereotype,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the acceptance of their wives' culture on their wives' acculturation and marital and life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family: Daegu and Gyeongbuk Area, i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ea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7(2), pp.219-239.

[12] J. H. Park. & J. K. Jung. (2008). A Validation Study for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IDI), i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ea Journal of Scial and Personal Psychology*, 22(1), pp.1-21.

[13] O. K. Yang. (2001). Study on Development of the Family Relationship Scale, Korean Academy of Family Social Work,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8(0). pp.119-147.

[14] J. S. Cho. & J. W. Hwang. (2017). The Effect of Marriage Immigrant Women's Acculturative Tendency on Marit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Acculturation Str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8. No.2.
pp.931-954.

- [15] H. N. Noh. (2007).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of the Chinese women who got married to Korean men and settled down in Korea*. Masters theses. Ewha Woman University.
- [16] S. G. Min. (2000),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WHOQOL-BREF), in Korea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Psychiatry investigation*, 154(1). pp.78-88.
- [17] H. Y. Kim., M. S. Suk., J. S. Choi. & S. K. Kim. (2015),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Gongdongche.

전 리 상(Lee-Sang Chon)

[정회원]



- 2002년 8월 : 전남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6년 8월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행정, 장애인복지, 다문화가족복지
- E-Mail : chonleesang@hanmail.net

조 흥 중(Hong-Joong Cho)

[정회원]



- 1992년 3월 : Tsukuba of University(교육학 석사)
- 1998년 7월 : Tsukuba of University(교육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전남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

- 관심분야 : 특수교육, 장애인복지, 다문화 교육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chohj@jnu.ac.kr